

• 독자투고 •

지난 해,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11월을 맞아 교실 환경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 달의 행사판'을 새로 갈았습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이어 "'85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11월!'이란 제목 아래, 『불은 고마우면서도 잘못 쓰면 재산을 재로 만들고, 귀중한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우리 모두 조심해서 고마운 불이 되도록 해야 겠다』고 썼습니다.

다른 행사들보다도 친구들 눈에 크게 띄라고 한 복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불길에 솟는 그림도 그려 넣어 누가 보더라도 불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 보시더니, "우리 현회가 제일 잘했군. 금년에도 우리 학교와 마을에서는 화재사건이 없겠다."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는 남이와 함께 콧노래를 부르면서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아침마 문방구'에 이를 즈음 갑자기 남쪽하늘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는 해를 가리면서 온통 마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 지면서 연기가 나는 곳으로 뛰었습니다. 나도 겁이 나 집으로 달렸습니다. 혹시나 우리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말입니다.

대문에 다달아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옥상에 올라가서 '뻗골말' 쪽을 바라보며 걱정하시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책가방을 내동댕이 치고는 연기가 나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골목골목에서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숨공장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어느새 연락이 났는지 불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불조심은 내가 먼저

홍 현 희

(북인천여자중학교 1학년 8반)

요란하게 났습니다. 나는 빨리 도착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일입니까? 자동차 소리만 났지 좀처럼 소방대원 아저씨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이렌 소리가 작아지더니 아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길이 좁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양동이로 바삐 물을 날라다 불 있는 곳에 끼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불이라 좀처럼 꺼지려 들지 않았습니다.

좀 늦긴했지만 현장에 달려 온 소방대원 아저씨들은 호스를 들고 용감하게 불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나도 불을 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 그저 마음 졸일 뿐이었습니다.

그대신, 아이들 정리에 나섰습니다. "길을 비켜라!"며 소리질렀습니다. 한 시간이 지날 무렵부터 불길이 서서히 잡혔습니다.

드디어, 하늘에 연기가 걷히면서 불씨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부주의로 석유공로가 넘어져서 불이 숨에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불은 고마우면서 무서운 것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며, 때로는 귀중한 생명까지 빼앗는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소방도로가 중요함도 알았습니다. 나는 '불조심'이라는 일기를 쓰면서, 다행히도 사람의 피해가 없었음에 감사했습니다.

한편, 우리 말 사전에서 '불'에 대하여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불조심은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린 행사판의 불조심 그림을 다음부터는 더욱 크게 그리기로 계획했습니다.

□